

이창동·동강면 4개마을 취약지 인프라 개선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공모, 이창동 골모실과 동강면 상촌·서촌(오른쪽)과 동전·연화마을(왼쪽)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재해·재난에 취약하고 생활 환경이 열악한 이창동, 동강면 2곳 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생활 인프라 개선에 착수한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이창동 골모실, 동강면 상촌·서촌·동전·연화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낙후된 농촌 오지, 도심 속 달동네 등 취약마을 주민 기본 생활수준, 안전 보장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을 '도시형', '농촌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2개 지역 사업 선정은 마을의 변화,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에 기반한 민·관 역량 결집과 신정훈 국

이창동 골모실, 동강면 상촌·서촌·동전·연화 마을 군발위 생활여건개조사업 선정 사업비 70억 확보

회의원과의 지속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창동 골모실 마을은 영산대학교에서 이창동으로 이어지는 경사면, 노봉산 밑 마을 정비를 통한 생활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사업 면적은 총 7만4154㎡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44억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노후주택 정비(집수리·슬레이트 지붕 개량·빈집정비)를 비롯해 골목길 포장, 울벽 정비, 안전난간·소화전·CCTV 설

치, 담장 철거 및 울타리 구축, 소토길·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한다.

주민 역량 강화와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더해줄 한방, 이·미용, 실버뷰티, 공예·음식교실, 마을리더·사회적 조직육성 교육 등 후면케어 사업도 눈길을 끈다.

농촌형 사업 대상지인 동강면 대전리 4곳 마을(상촌·서촌·동전·연화)에서도 재해·사고 위험성이 큰 마을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 안전성 확보, 주택 정비,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에 힘을 쏟는다.

총 18만7000㎡규모로 오는 2026년까

지 국비 15억원 등 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된다.

배수로·경사면·노후담장 정비, 소화전·보안등·반사경·CCTV 설치 등 재해방지시설 구축과 마을쉼터·귀농·귀촌 임시주택 조성, 노후 주택 정비 등을 추진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쇠퇴한 마을 정주 여건으로 재난·사고 위험, 생활 불편을 감내해왔던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농촌 빈집, 마을기반시설 정비 등 농촌 환경 개선을 통해 돌아오는 농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청렴·갑질근절·행동강령 교육 나주시, 간부공무원 대상

나주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급 팀장을 대상으로 '청렴·갑질 근절·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리더십 역량강화를 목표로 청렴연수원 이지문 강사를 초청해 청탁 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제도 제정 배경,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공직사회 내부 청렴도 저해 요인 중 하나인 '갑질 행위'의 개념과 갑질 근절 등 판단기준을 다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조직의 리더로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소통과 공감 대화법을 익혀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나주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54개 부서, 102건의 청렴 신규시책을 발굴했다.

행정 경험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관련 의견 청취하는 '청렴 해피콜 만족도 조사', 내부청렴도 요인 심층 파악을 위한 '청렴감수성 CBTI 진단', '청렴 서한문 및 메시지 발송', '청렴 마일리지 운영' 등 차별화된 청렴 시책을 추진 중이다.

나주·박송엽 기자

고향사랑담레품 기탁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나주 출신 세계적인 배드민턴 여자 국가대표 안세영의 고향사랑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안세영은 지난 달 500만원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동참에 이어 지난 10일 150만원 상당의 고향사랑기부 담레품을 고향 나주 이창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나주배, 멜론, 잡곡, 쌀, 천연염색제품, 나주사랑상품권, 나주소방물 마일리지, 나주목산매아 숙박권 등 총 8종의 나주시 담레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안 선수는 부친 안정현(나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씨를 통해 담레품으로 상품권 150만원을 이창동에 기탁했다.

안 선수는 지난 1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말레이시아·인도·인도네시아) 우승 2회, 준우승 1회, 3월 세계 최고권위의 전영오픈대회에서 우승해 배드민턴 여제로 우뚝 섰다.

안정현씨는 "딸 세영이가 어린시절을 나주에서 보냈다"며 "고향 사랑이 남달라 지난 2월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동참에 이어 이번 담레품인 150만원 상당의 나주사랑상품권을 이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나철용·나삼균 나주 이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고향을 위해 기탁한 담레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나주·박송엽 기자**

지역공익활동지원 총력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역 공익활동가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컨설팅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센터가 배출한 나주시공익활동가는 1기부터 5기까지 총 52명으로 교육·문화·환경 등 3개 분과로 나눠 나주 지역 공익활동을 위해 활동 중이다.

센터는 매월 각 분과별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공익활동가들이 나주 지역 공익을 위해 추진하고 나갈 방향 제시 등 공익활동가 지원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정성진 문화분과위원장 등 문화분과, 지난 28일엔 김현숙 교육분과위원장 등 교육분과 회의 및 마을의제 발굴, 마을문제 해결, 분과 미래전략 등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센터는 4월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5월 '찾아가는 마을컨설팅' 등 매월 주제를 선정해 각 분과별로 나주 지역 공익활동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석순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팀장은 "그동안 센터가 배출한 공익활동가들이 52명으로 이분들이 나주 지역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스스로 의제발굴하고 해결, 추진해 내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센터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센터가 공익활동가들을 더 많이 양성, 배출해 내어 더불어 다함께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5일 빛가람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빛가람동 동민의 날 행사를 가졌다.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노래자랑, 경품추천, 체험부스, 초대가수 공연 등이 진행됐다.

빛가람동 동민의 날 첫 행사 3000여명 참여 성황

빛가람호수공원 야외무대

나주시는 지난 25일 빛가람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빛가람동 동민의 날 첫 행사가 성대히 종료됐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 2월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이래 처음 제정(2월24일)된 동민의 날 기념 첫 행사는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이재태 전남도의원, 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정치인·시민 등 30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부 기념식, 오후 2부 초대가수 공연, 동민 노래자랑, 경품

추첨, 체험·판매부스 운영 등 봄 주말 벚꽃이 개화한 가운데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날 시정발전 유공으로 변영자, 김양택씨가 국회의원상, 박종섭, 최정철, 정진영 씨는 나주시장상, 나철수, 정인호씨는 시의회 의장상, 효자상-김상국, 효부상-권광자, 선행학생상-이정효 등 9명, 봉사상-정수인씨는 동장상,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광전노협 등 단체는 행사추진위원장으로 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문화의 날 행사도 병행했다. 초대가수 차효린, 문주리, 유인상 등 6명의 초대가수 노래 공연과 함께 빛가람혁신도시 건립과정을 담은 기록물 전시도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24명이 참가한 노래자랑 결과 '매밀꽃 필 무렵(이찬원)'을 부른 심운섭 씨가 1등 냉장고, '벚꽃 엔딩(버스커버스커)'을 부른 정유호씨가 2등 TV, '빠꾸기 등 지위로 날아간 새(김건모)'를 부른 정웅면씨가 3등 쿠쿠압력밥솥, 김현지·김도형 양은 인기상을 각각 수상했다.

장영배 빛가람동 동민의 날 행사추진 위원장은 "빛가람동이 개청한 이래 9년 만에 첫 동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39000명의 동민이 화합하고 단결해 희망찬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글·사진=나주 박송엽 기자